취임일 증시 급락

외국인 매도… 600선 붕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에 밀려 600선 아래로 급락했다.

이날 거래소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24.04포인트(3.90%) 내린 592.25로 마감해 지난 14일 이후 7거래일만에 6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 종합지수도 전날보다 1.45포인트(3.30%) 내린 42.43을 기록, 사상 최저치(42.15)에 근접하는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증시 하락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 미국의 대이라크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전쟁 위험 부각으로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증시전문가들은 밝혔다.

박상현기자 psh21@dt.co.kr

청와대 정례 브리핑 케이블·위성채널로 본다

노무현 정부의 '열린 청와대' 개념에 따라 도입된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케이블과 위성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국립방송 KTV와 영어채널 아리랑TV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매일 두차례씩 청와대 정례 브리핑을 생중계한다. 아리랑TV는 영어 동시통역을 통해 방송하게 된다.

'정례 브리핑' 중계방송은 국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국내 주요사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거래 표준화 시급" ECIF, 기업·공공기관 조사

국내 민간기업과 전자거래 관련 공공기관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표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ECIF, 회장 박용성)이 국내 3000여개 민간기업 및 공공부분의 전자거래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표준화 수요 및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3%가 전자거래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전자거래 표준이 필요한 이유로 '내부관리의 효율화 및 비용 절감(65.6%)', '대외적 범용성(43.0%)'과 '새로운 고객의 발굴 및 신시장 개척 필요(28.5%)' 등을 꼽았다.

김영민기자 ymin@dt.co.kr

"하이닉스, 웨이퍼 매입 옵션계약"

미국 자회사 HSMA 자금차입때 JP모건과 현대3사 지원약정… 조기상환 요구 가능성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정기 주주총회가 삼엄한 경비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

하이닉스반도체의 자회사인 '하이닉스반도체 매뉴팩처링 아메리카(HSMA)'가 JP모건체이스은행(JPMC 옛 체이스맨허튼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 자금을 차입하면서 하이닉스가 HSMA에서 생산한 웨이퍼를 생산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 의무적으로 매입하기로 옵션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18면

또 JPMC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현대종합상사가 하이닉스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그룹지원약정에 서명했으며, 하이닉스와 지원 3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JPMC가 채무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3사 중 재무상황이 어려운 현대상선으로 인해 JPMC가 HSMA에 채무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25일 하이닉스가 주주총회에서 배포한 자료중 이 회사의 지난 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나왔다.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HSMA가 JPMC로부터 빌린 채무액은 1조11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HSMA가 JPMC에서 자금을 빌릴 당시 하이닉스가 HSMA에서 생산한 웨이퍼를 일정한 이익을 붙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옵션이 달린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greement)를 맺었다고 밝혔다. 오프테이크 계약은 생산 물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현대중공업·현대상선·현대종합상사는 JPMC 요청에 따라 하이닉스의 옵션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그룹지원약정(Group Support Agreement)을 체결했다. HSMA와 JPMC간 체결된 차입약정서에는 하이닉스의 웨이퍼 구매계약 이행상태, 하이닉스 및 지원 3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채무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돼 있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하이닉스와 지원3사의 재무상황과 금융권의 지원 등이 조기상환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현대상선의 취약한 재무상황이 JPMC의 조기상환권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JPMC가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면 하이닉스와 지원 3사에 상당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상당한 기간동안 JPMC와의 접촉결과와 실익여부 분석, 법률적 해석 등을 통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는 전했다. 정호원기자 jhw@dt.co.kr

앰코, 한국내 사업장 개편

광주 K4라인 최첨단 생산시설 특화

세계 1위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스는 최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내 생산시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열리고 있는 '2003 글로벌 일렉트로닉 서밋'에 참가중인 앰코테크놀로지스는 이날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안에 아남반도체의 K2라인을 광주에 위치한 K4라인으로 이전하고, K4라인을 최첨단 패키징 서비스 전용 생산시설로 특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앰코는 국내에 K1-K4 등 총 4개 라인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아남반도체의 보유지분 절반을 동부전자에 매각하면서 아남반도체 부천 공장내에 위치한 K2라인의 이전작업에 착수했었다.

앰코테크놀로지 공정사업부 브루스 프레이먼 부사장은 "부천의 K2라인을 광주의 K4로 이전하게되면 한국내 패키징 라인은 K1, K3, K4로 정리된다"며 "K1과 K3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업장은 R&D 전문기지로, K4가 위치한 광주사업장은 최첨단 패키징 전용라인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2개 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K4는 5~7년 간 추가투자를 통해 2개 라인을 증설, 총 4개 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앰코의 올해 투자예산은 총 1억25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국 내 신규라인 구축, 한국내 사업장 재편과 노후라인의 중국 및 필리핀 공장으로의 이전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앰코의 한국사업장은 이 회사 전체매출의 50%, R&D분야의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프레이먼 부사장은 "북한 핵 개발 문제에서 기인하는 한국내 정치적 불안에 대한 우려로 앰코가 한국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며 "파운드리 업체인 아남반도체에 대한 나머지 지분 20%를 점진적으로 매각, 파운드리에서는 완전 손을 떼는 대신 한국내 패키징 사업장의 역할은 생산과 R&D 부분 측면에서 강화한다는 것이 앰코테크놀로지스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몬테레이=허정화기자 nikah@dt.co.kr

숫자마케팅 뜬다

상표 출원 크게늘어 99년후 연평균 1000건

'숫자'를 이용한 브랜드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문자로만 표시된 상표보다 이미지 전달이 빠르고 제품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숫자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숫자상표는 지난 1996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200여건이었으나,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나 각종 ARS서비스에 노출되면서 숫자와 친숙해진 데다, 감각세대인 10~20대의 숫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때문으로 보인다.

외우기 쉽고 메시지 전달이 빠른 8257(빨리 호출하라), 8272(빨리 처리하라), 7704(칠칠공사), 0909(공부공부)등의 상표가 출원됐다. 또 특정세대를 암시하는 2030, 2080, 클럽61 등도 있다. 대전=조규환기자 khcho@dt.co.kr

아랍에미리트에 홍채인식기 수출

세넥스테크, 100만달러 상당

홍채인식 솔루션 개발업체인 세넥스테크놀로지(www.senextech.com 대표 남궁종)는 아랍에미리트의 보안장비 업체인 라 로쉬(Rah Rosh d)에 홍채인식 제품인 '트루아이'(TrueEyE) 100만 달러 어치를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라 로쉬가 1년간 세넥스의 홍채인식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홍채인식기 36대를 포함해 약 7만2000 달러 어치를 수주했고, 추후 인식기가 양산되는 시점부터 나머지 계약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궁종 사장은 "이라크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물리적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 기회에 홍채 인식 제품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동남아·남아프리카 등지로 해외시장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해킹유발 신종 웜 '러브게이트' 주의

해킹을 유발할 수 있는 신종 웜 '러브게이트'가 해외에서 급속히 확산된 데 이어 25일 국내도 유입,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백신업계에 따르면, 감염시 특정 네트워크 포트(10168번)를 열어 해커의 침입을 돕는 웜 '러브게이트'(Win32.LovGate.worm.78848)가 지난 24일부터 홍콩·일본·영국·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 피해를 확산시킨 데 이어 국내에도 25일 오후 유입됐다.

러브게이트는 이메일과 윈도 NT 계열(2000 및 XP) 시스템의 네트워크 공유폴더를 통해 전파되며, 감염시 시스템에 존재하는 HTM 및 HTML 파일에서 추출한 메일 주소로 같은 웜 메일을 발송한다. 메일의 제목은 'Documents' 'Beta' 'Last Update' 'The patch' 등 특정 문서나 평가 소프트웨어, 패치 파일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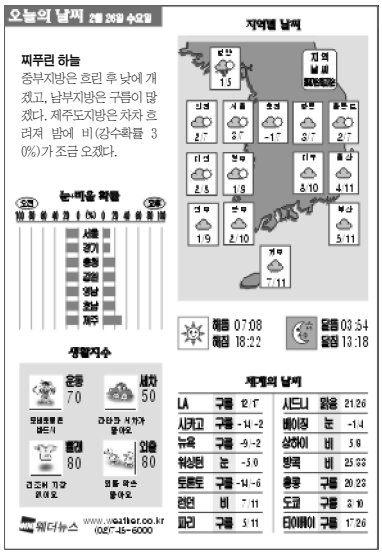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작년 전자상거래 분쟁 급증

조정신청 854건… 87% 늘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854건으로 전년대비 약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글인터넷 주소 관련 분쟁이나 인터넷쇼핑몰 분양사기 등 분쟁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ecmc.or.kr 원장 정득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진흥원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처리한 전자거래 관련 각종 상담과 조정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통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분쟁 관련 상담건수는 총 2987건으로, 2000년 308건과 2001년 1310건에 비해 대거 증가추세에 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진 건수도 854건으로 2001년 457건(2000년 83건)에 비해 약 87%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의 특징은 배송지연·미인도 등과 같이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분쟁유형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계약취소·반품·환불요구 등 계약 자체를 철회하는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해 전체의 36.7%(313건)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조성훈기자 hoon21@dt.co.kr